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 상설전시공간으로 회원인들의 쉼터,
책읽기를 통한 나만의 치유공간 '효원책방'이 찾아옵니다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원  도서관
Vol. 48 2020. 6.



코로나19
e-Learning
알랭 드 보통
부산대 앞 서점

똑똑
문을 열다

Vol. 48 2020. 6.

효원  도서관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01 e-Learning 온라인 강좌 서비스
02 ScienceDirect 종량제 도입 결과
- 08** **특집 기사** 코로나19 팬데믹과 부산대 도서관
- 12** **효원인 감동공유** 알랭 드 보통 작가 도서
- 14** **특별기고** 책 읽기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힘
- 18** **여기 issue**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습격
- 20** **#발견 #이곳** 부산대 앞을 지켜온 서점
- 22** **시선집중** 지난소식 / 예정소식
- 26** **소셜 라이브러리** 도서관 in SNS
- 27**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수상 발행일 2020. 6. 30.
편집 김미선, 오오환, 전태경, 정재수, 최덕수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https://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01 도서관에서 무료로 배우는 e-Learning 온라인 강좌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공무원 강좌, 외국어 강좌, IT 자격증 등 취업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강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및 관련 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e-Learn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로그인) → 자료검색 → 온라인강좌(e-Learning)

온라인 강좌 리스트



해커스 (어학)

- TOEFL, TOEIC, TEPS
- 영어회화
- 중국어, 일본어
- 기타 외국어(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모바일 접속 이용안내

- iOS[사파리], 안드로이드[인터넷] 사용
 ※ [크롬]은 이용불가
 ① mbiz.ChampStudy.com 접속
 ② 기입코드(pnuilib) 및 로그인 정보 입력 후 사용



에듀윌 (공무원 강좌) ※2020년 신규구독

- 9급 공무원

모바일 접속 이용안내

- ① 도서관 모바일 홈페이지 접속(앱접속 포함) 및 로그인
 ② 온라인 강좌 메뉴에서 에듀윌 사이트 접속



아이티고 (IT강좌)

- IT관련 자격증
 - MOS, 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ITQ, e-Test, 정보처리 등
- IT실무
 - CAD, 2D/3D그래픽, 멀티미디어, 동영상,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등

모바일 접속 이용안내

- ① 최초 1회 PC에서 아이티고 사이트 접속
 ② 모바일기기 웹브라우저에서 m.itgo.kr 접속
 ③ 부산대 선택, 학번 입력 후 이용

이용통계 | (2019.1.~2020.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해커스	2,308	3,644	2,439	2,596	2,093	1,589	1,824	3,499	2,684	2,291	1,528	1,452	1,864	2,781	2,749	1,721	1,523
에듀윌													670	1,091	2,150	1,942	1,604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ITGO	2,077	1,347	1,057	733	941	938	2,262	2,611	776	285	585	621	1,246	1,114	1,863	1,053	807

※실제 수강 통계(단순 접속 횟수 제외)

인기강좌

	1위	2위	3위
해커스	해커스 토익 Reading 문법	해커스 토익 Listening Part1,2	해커스 토익 스피킹 스타트
에듀윌	[2020] 9급 국어 기본이론	[2020] 9급 영어 이론강의(상)	9급 한국사 기본이론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ITGO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 - 스프레드시트 실무	컴퓨터활용능력시험 1급 필기 - 컴퓨터일반	컴퓨터활용능력시험 2급 실기

FAQ

- ?** 유료 사이트에 있는 해커스 강의가 도서관 제공 온라인 강좌에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다수공급 제한강의'로 업체 규정을 적용하여 기관 회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강좌가 있습니다.
- ?** 해커스를 모바일(안드로이드)로 이용 시 가끔 오류가 발생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 시 브라우저는 기본 브라우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 브라우저 사용시(ex. 크롬)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유료 사이트에 있는 해커스 강의가 도서관 제공 온라인 강좌에는 없습니다. 업체에서 '다수공급 제한강의'로 업체 규정을 적용하여 기관 회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강좌가 있습니다.
- ?** 졸업 후에도 온라인 강좌 수강이 가능한가요? 졸업 후 회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 ?** 연속성 있게 강의를 수강하고 싶은데 이러닝 강좌가 중간에 구독이 중지되는 경우는 없나요? 연 단위로 구독계약을 맺고 있으며, 최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구독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용자분들께 미리 사전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구독 : 자료개발팀 051-510-1805 시스템 : 전산지원팀 051-510-1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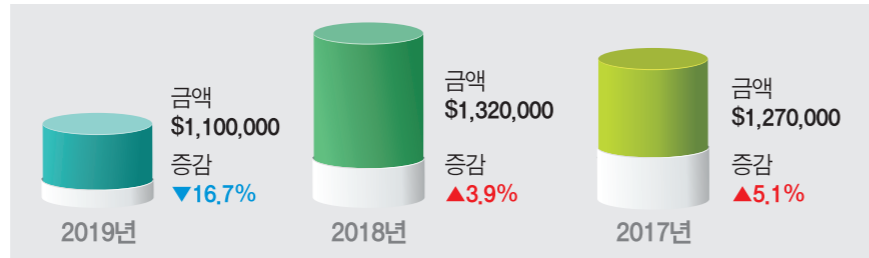
02 Science Direct

종량제 도입 결과

부산대 도서관에서는 전자자료 구독 비용의 50% 이상 (1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ScienceDirect의 인상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ScienceDirect 전체 저널에 대한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에서 [①이용도가 높은 저널의 무제한 다운로드 & ②이용도가 낮은 저널의 종량제 구입 & ③대체자원 이용]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변화된 연구 환경에서 부산대학교 연구자가 2019년에 ScienceDirect 종량제를 이용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구독 방식 변경



- 변경 : '전자저널 개별구독(Standard Collection) & 종량제' 방식
※ 도서관 예산 감소 및 ScienceDirect 구독금액 증가 등
- 기존 : Basic Collection + Freedom Collection 옵션으로 Full Package 구독

2. 종량제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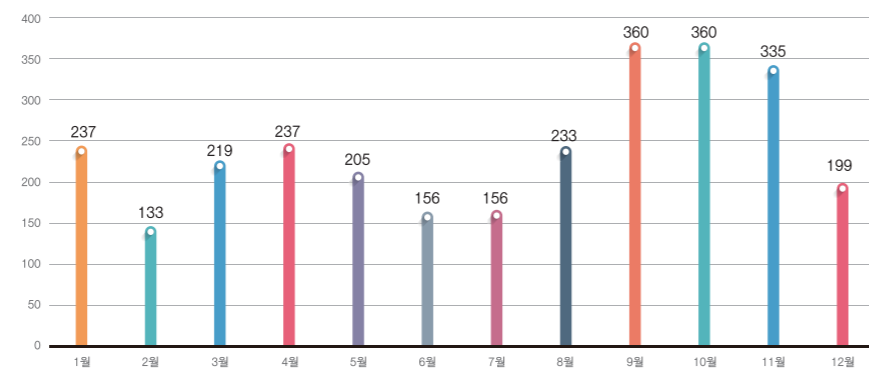
- 이용 기간 : 2019.01.02. ~ 2019.12.31.
- 이용 건수 : 2,830건 (ScienceDirect 기록 기준)
※ 부산대 전산 로그 기준은 945명 / 1,975건

1) 자료유형별 이용 현황 (ScienceDirect 기록 기준)

구분	이용 건수	이용 비율
Elsevier Journals	2,636건	93.1%
Elsevier Book	104건	3.7%
Elsevier Book Series	49건	1.7%
Cell Press Journals	13건	0.5%
Elsevier Handbook Series	13건	0.5%
Elsevier Textbook	6건	0.2%
Elsevier Encyclopedia (MRW)	5건	0.2%
Elsevier Comprehensive (MRW)	2건	0.1%
New Scientist	2건	0.1%
합계	2,830건	100.0%

- Elsevier Journal(2,636건, 93.7%) 이용 건수가 대다수
- 전자저널 외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종량제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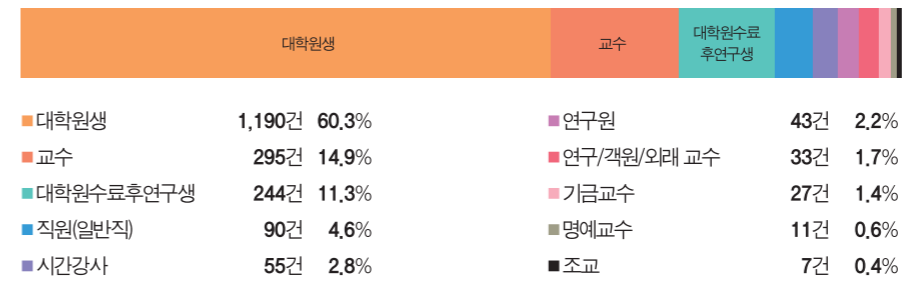
2) 월별 이용 현황 (ScienceDirect 기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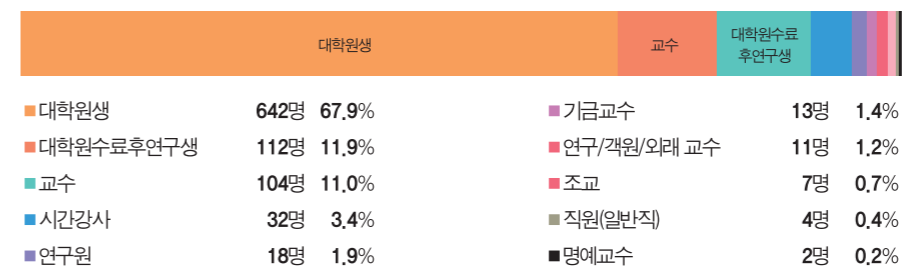
- 월평균 이용 건수는 236건

3) 신분별 이용 현황 (부산대 전산 로그 기준)

신분별 SD 종량제 이용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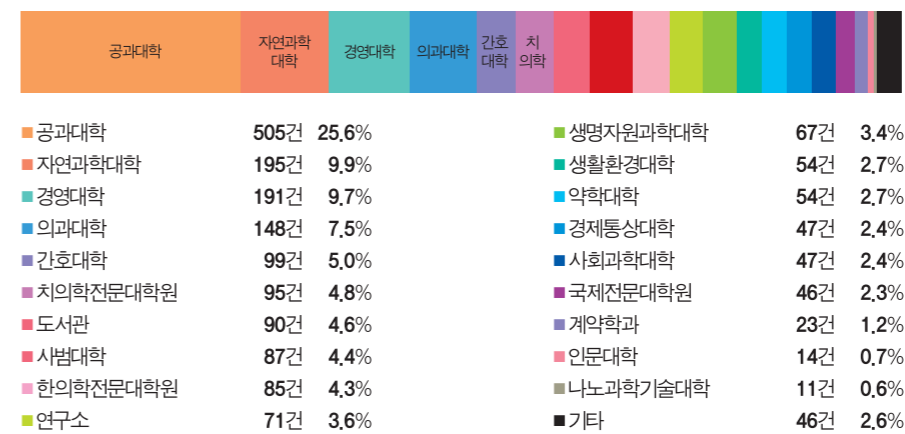


신분별 SD 종량제 이용자 수



- 신분별 설정값 최댓값도 이용자는 대학원생(54명, 75.0%), 대학원수료후연구생(14명, 19.4%), 연구원(3명, 4.2%), 명예 교수(1명, 1.4%) 순으로 높음
- 신분별 설정값의 50% 이상 이용자는 대학원생(143명, 75.7%), 대학원수료후연구생(30명, 15.9%), 교수(7명, 3.7%) 순으로 높음

4) 소속기관별 이용 현황 (부산대 전산 로그 기준)



- 공과대학(505건, 25.6%), 자연과학대학(195건, 9.9%), 경영대학(191건, 9.7%) 순으로 이용 건수가 많음
- 공과대학(262명, 27.7%), 자연과학대학(89명, 9.4%), 의과대학(85명, 9.0%) 순으로 이용자 수가 많음
- 기타는 스포츠과학부(10건), 학과간 협동과정(9건), 예술대학(8건), 환경대학원(5건), 법학전문대학원(3건), 본부(2건), 부속 기관(2건), 금융대학원(1건), 산업대학원(1건), 소속 정보 미상(5건)

• 이용 건수 Top 10개 학과

학과	이용 건수	비율
경영학과	188	9.5%
기계공학부	133	6.7%
의학과	127	6.4%
간호학과	99	5.0%
치의학과	95	4.8%
한의학학과	84	4.3%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60	3.0%
재료공학과	49	2.5%
제약학과	47	2.4%
화학학과	46	2.3%

• 이용자 수 Top 10개 학과

학과	이용자 수	비율
의학과	76	8.0%
경영학과	75	7.9%
기계공학부	56	5.9%
치의학과	56	5.9%
간호학과	47	5.0%
한의학학과	46	4.9%
재료공학과	29	3.1%
화학학과	26	2.8%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25	2.6%
교육학과	23	2.4%
화학공학, 고분자공학과	23	2.4%

ScienceDirect 이용 방법

반드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ScienceDirect를 이용해야 한다.

-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술논문 : 논문 검색 후 이용
-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저널 : 저널 검색 후 이용
-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술DB → ScienceDirect

※ 즐겨찾기, 주소 직접 입력을 통한 ScienceDirect 접속 시 이용 불가

※ ScienceDirect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 연구정보지원팀 051-510-1863

코로나19 팬데믹



부산대 도서관은 어떻게 대응했나?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호흡기 질환으로 신종바이러스가 발병 원인으로 밝혀지며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이어진 코로나19! 도서관은 다중이용시설로 전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이지만 교내 구성원들의 학습과 연구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 필수 시설이기도 하다.

부산대 도서관은 국내외 부산시, 학내의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민감하게 관찰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며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 1월 20일부터 5월까지 부산대 도서관은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날짜별, 주요 사건별로 정리해보았다.

02.03.
국내/부산시 추이
1.20,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환자 발생

1.27, 국내에 4명의 확진 환자 발생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02.03.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도서관 자체 대응 매뉴얼 수립 시행
• 전 직원 근무 시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체온계 비치

02.06.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방법
• 택배, 등기우편 방법 추가

02.07.
도서관 방역
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 법학도서관, 미래열람실

학내 추이
• 2019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및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취소
• 개강일 2주 연기 및 중강일 1주 연기

02.10.
미래열람실 휴실 및 새벽별도서관 제1열람실 23시까지 축소 운영

02.23.
새벽별도서관 휴관(긴급 방역)
국내/부산시 추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밤부터 대응 강화
• 대구·경북 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

학내 추이
금정회관 방문한 외부 일반인 1명 확진판정

02.22.
18:00이후 새벽별도서관 긴급 휴관

02.19.
국내/부산시 추이 2.21, 부산시 첫 확진자 발생 (동래구)
중앙도서관 발열감지 카메라 설치

02.11.
국내/부산시 추이 대구·경북 확진자 대규모 발생
새벽별도서관 발열감지 카메라 설치

02.24.
학내 추이
• 부산대 학생 1명 확진판정
• 부산대 겸임교수 1명 확진판정

02.24.
코로나19관련 도서관 이용 제한 안내 (37도 이상 발열자, 마스크 미착용자, 확진자 접촉자)
• 직원 비상근무 시작

02.25.
도서관 이용시간 축소·제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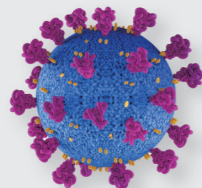
구분	운영시간
중앙도서관	평일 13:00-18:00
새벽별도서관	주말, 휴일 휴관
법학도서관	휴관

02.26.
의생명과학도서관 방역

02.29.
나노생명과학도서관 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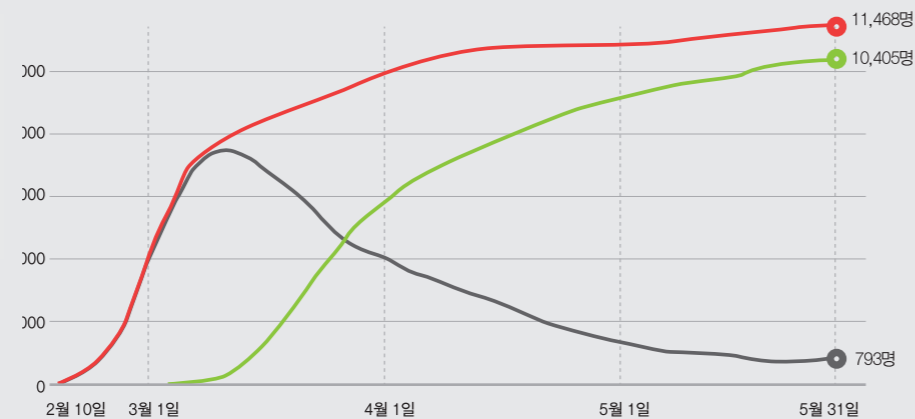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2월 18일 ~ 5월 31일까지



누적확진자 11,468 | 격리해제 10,405 | 격리 중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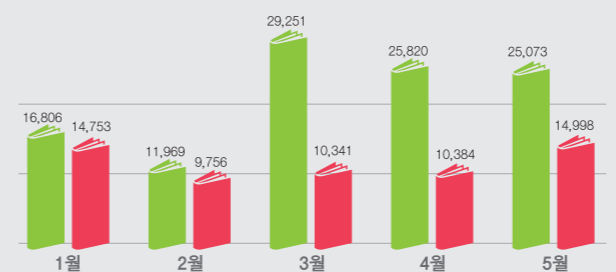
※ 일별 시차에 따라 확진자 수 차이 있음
자료/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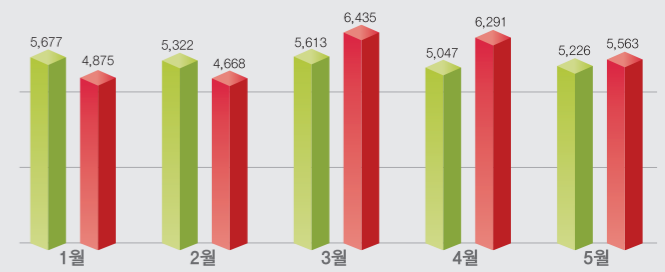
소장자료 이용률

2019년 1월~5월 vs 2020년 1월~5월

인쇄본 대출통계 | 2019 108,919 | 2020 60,232



국내 전자책 대출통계 | 2019 26,885 | 2020 27,832



전자저널 이용률 (2019년 1월~4월 vs 2020년 1월~4월) | 전체 전자저널 이용률은 전년 대비 평균 15% 감소하였으며, 특히 학부생이 많이 이용하는 국내저널은 34%가 감소하였다.

03.03.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발생 대비 도서관 대응 매뉴얼 수립


03.11.

도서관 이용시간 축소·제한 운영 연장
국내/부산시 추이
WHO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포

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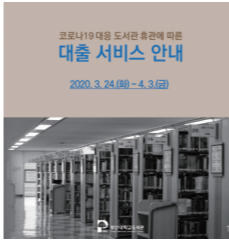
학내 추이
• 재택수업 운영(3.16.~3.28.)
• 재택수업 운영기간 1주 연장(3.16.~4.4.)

03.23.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도서관 전체 휴관**
국내/부산시 추이
정부방침 :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3.22.~4.5.)

03.24.



온라인 도서대출 신청 서비스 실시
학내 추이
• 3.28. 부산대 독일인 교향 학생 1명 확진판정
• 재택수업 추가 연장 (3.16.~4.25.)


04.06.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휴관 연장
국내/부산시 추이
정부방침 :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4.6.~4.19.)

04.17.


국내/부산시 추이
정부방침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20.~5.5.)
학내 추이
1학기 재택수업 전체 운영

04.22.



도서관 운영 재개 -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 변경
자료실 : 09:00~18:00
열람실 : 13:00~18:00


05.06.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자료실 : 09:00~18:00
열람실 : 09:00~18:00
국내/부산시 추이
정부방침 : '생활 속 거리두기' (5.6.~)

도서관 방역 일정 (3월 이후)

03.08. 새벽별도서관,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04.08. 법학도서관
03.16. 새벽별도서관,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05.06. 새벽별도서관
03.21. 나노생명과학도서관	05.16. 나노생명과학도서관
03.22. 새벽별도서관,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05.17. 의생명과학도서관
04.07. 새벽별도서관, 중앙도서관	05.25. 새벽별도서관, 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위기 속에서도
도서관 서비스는 계속 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도서관 서비스



온라인 도서대출 신청 서비스

정부 정책에 따라 3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대 전체 도서관이 휴관하게 되었다. 도서관은 휴관 기간에도 학습과 연구를 위한 자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온라인 도서대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기존의 보존서고 신청 기능을 활용하여 1인당 최대 5권까지 도서 대출 신청을 하고 각 도서관 1층 대출 데스크에서 책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4. 1 ~ 5. 31 일
가볍고 편하게 시작하는 유쾌한 도서관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온라인 도서관 이용교육

도서관은 매년 3, 4월에 학부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해지자 PLATO(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플랫폼)에 자율강좌를 개설하여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이용교육 강좌는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법과 자료 활용법으로 구성된 약 18분의 동영상 강의로 학부 신입생 중에서 3,462명이 이수하였다. (이수율 87%, 부산캠퍼스 기준)



3.코로나19대응국외 전자책 프로모션
ProQuest ebook, EBSCO ebook, Harvard Business Review, JSTOR ebooks, Elsevier ebook, Springer Nature, MIT Press, De Gruyter

전자책, 전자저널 무료 이용 프로모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휴교 또는 온라인 강의를 확대되면서 해외 출판사들은 전자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구입한 해외 전자책은 1책당 1~3명으로 이용자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프로모션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전자책 일부를 1책당 이용자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전자저널 출판사 및 제공사들이 코로나19 관련 최신 콘텐츠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모션을 교내 구성원들이 학습과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대 도서관은 홈페이지와 SNS 카드뉴스, 이메일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정보제공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최신 연구자료 이용 안내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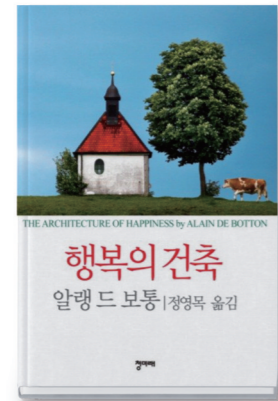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는 인류사에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개인 방역을 준수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을 위해 힘쓴 모든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도서관 이용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다 함께 실천해야겠다. 또한 코로나19는 도서관 현장에도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와 역할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숙제를 남겼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기대해본다.

! 효원인 감동공유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알랭 드 보통

도서관에서는 2012년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효원인 감동공유 :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서를 받고 있으며, 제출된 추천서 중 우수 추천서를 선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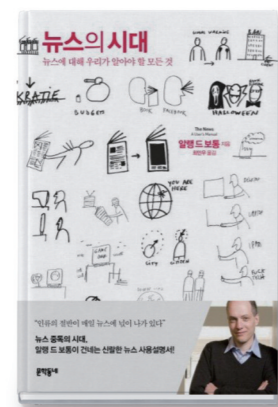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된 우수 추천서 중 가장 많이 추천된 해외 작가인 알랭 드 보통 작가의 책을 소개하고 우수 추천서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행복의 건축

알랭 드 보통 저, 정영목 역 | 청미래 | 2011 | 312 p.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DM 720.103 D287a한]
 추천인 | 김동우(경제학부) 선정연도 |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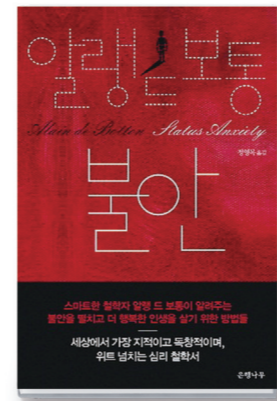
공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인문학적 고찰
 (중략) 이 책은 공간과 장소, 그리고 건축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이다. 저자는 지금껏 다른 작품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철학, 문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풍부한 인문학적 관점을 통해 건축에 다가간다. 건축하면 떠올릴만한 복잡한 설계도나 그 위의 수식, 난해한 용어 등도 없지만 건축의 본질인 공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공공건축의 대가 그 정기용 건축가의 마지막 모습을 담은 영화 <말하는 건축가>를 비롯해 집을 짓는 과정을 사랑에 빚대어 서정적으로 표현한 <건축학개론>의 중심이 되는 소재 역시 건축이다. 두 영화는 공통적으로 '건축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준다. 이 책도 마찬가지다. 아마 평소엔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공간과 장소, 건축 그리고 그 곳에 머무는 사람들의 의미가 마음속에 탄탄하게 지어질지 모른다.



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통 저, 최민우 역 | 문학동네 | 2014 | 302 p.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302.23 D287n한]
 추천인 | 허윤정(문헌정보학과) 선정연도 | 2014년

새벽에서 황혼까지
 (중략) 이 책은 정치 뉴스, 해외 뉴스, 경제 뉴스, 셀러브리티 뉴스, 재난 뉴스, 소비자 정보 뉴스의 6가지 형태로 뉴스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중략)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뉴스는 우리가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데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변명을 제공한다.', '뉴스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줄 독창적이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새벽부터 황혼까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뉴스가 스며들어있다. 컴퓨터 자판과 스마트 폰 위의 손가락은 끊임없이 포털 사이트를 돌아다녀 새로운 소식을 쫓고 있는 이때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인지, 정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뒤돌아봐야 한다. 혹시 내가 쫓고 있는 것에 쫓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수확은 스스로가 뉴스를 수용하는 태도와 뉴스를 파악하는 사고체계에 대한 생각도 해보는 기회일 것이다.



불안

알랭 드 보통 저, 정영목 역 | 은행나무 | 2011 | 368 p.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305 D287s한A]
 추천인 | 허윤정(문헌정보학과) 선정연도 | 2014년

불안한 당신에게
 '20대 청춘을 넘어 현재 우리 사회의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며 관통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당신은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싶은가? 나는 이 책의 제목을 답으로 선택하고 싶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특히 젊은이들이 불안과 좌절에 대한 소위 '힐링'에 빠져있었으며 누군가는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힐링 열풍을 거론한다고 해서 이 책이 힐링 열풍에 반대하거나 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단지 저자가 제시하는 불안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중략)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불안이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그냥 '느낀다'라고 생각했던 불안이 어떤 사고과정과 사회구조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생기는 것인지, 불안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들은 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한 마디로 이 책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불안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러한 구체화가 불안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알랭 드 보통 저, 정영목 역 | 청미래 | 2007 | 278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23.914 D287e2한]
 추천인 | 정미수(국어국문학과) 선정연도 | 2015년

할자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모든 것을 담은 책
 (중략) 작가 알랭 드 보통이 스펀지 살에 쓰며 작가로서 모습을 드러낸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는 인간이라면 한 번은 궁금증을 품을 만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쓴 소설이다. 끝릴 수밖에 없는 책이다. (중략) 이 책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그녀와 나, 나와 그의 사랑은 운명적이고 우리만큼 정해진 만남은 없음을 공감할 수 있다. 또, 끝이 난 연애에 대한 애잔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책이다. 절대적인 것 같은 운명이 상대적임을 인지하는 순간 사랑은 보편성의 일부가 되며, 그 순간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거나 알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별은 얼마나 불가피한 요소인지 그 아픔의 깊이는 어떤 것인지 활자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연애를 마음껏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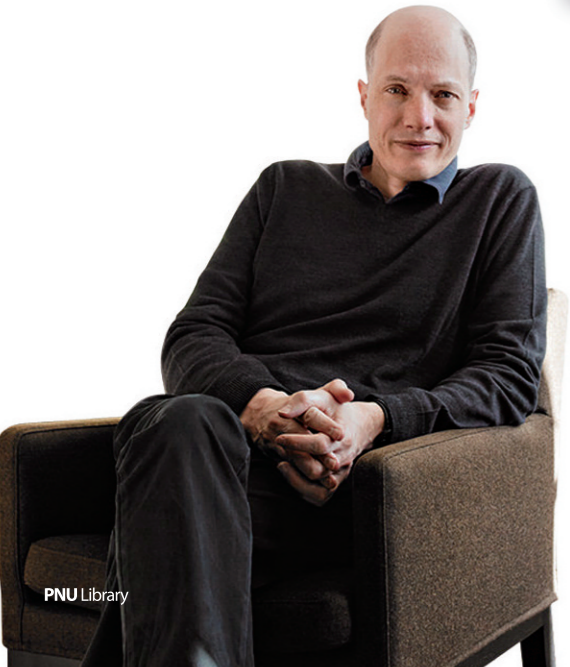
2020년도
효원인감동공유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
공모기간 2020.5.1. ~ 7.31.
 내 삶에 영향을 준 좋은 책을 추천함으로써, 연구, 선행과 소통하고 상투적이고 과잉되고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 참가 대상 부산대학교 학부생(휴학생 포함)
 ■ 추천 대상 모든 도서(문학, 철학, 인문학 도서, 무협지 등 제외)
 단, 기록(2019년 2학기 이전)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 제외
 (다른 추천도서 리스트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참조)
 ■ 응모 방법 ①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클릭 (http://lib.pusan.ac.kr)
 ② 부산대학교 도서관(중앙도서관) - 비고과 - 참가신청 - 효원인감동공유 공모
 신청서 작성(필수) 및 공모(필수) ③ 응모 마감: 2020년 7월 31일
 ■ 제출 양식 첨부파일 이름: 분량 4~5페이지(표지 제외,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우수추천서 발표 2020년 9월 중
 ■ 우수추천서 시상 100건, 도서상품권 1만원권 지급(최대 3건까지 추천 가능)
 ■ 문의 효원인감동공유 담당 (Tel. 510-1009, wherry17@puan.ac.kr)

|2020 효원인 감동공유|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 공모

내 삶에 영향을 준 좋은 책을 추천함으로써, 친구 · 선배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보세요!

- 참여대상**
부산대학교 학부생(휴학생 포함)
- 모집기간**
2020년 5월 1일(금) ~ 7월 31일(금)
- 추천대상 도서**
만화, 판타지, 선정적 도서, 무협지 등을 제외한 모든 도서
- 우수추천서 발표 및 시상**
100건 선정(도서상품권 1만원권 지급, 1인당 최대 3건까지 추천 가능)

Alain de Botton



책 읽기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힘

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이용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누려온 일상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영망이 되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온 인류는 당황하고 허둥대고 있다.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해 온 사피엔스로서는 영면이 서지 않는다.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위기 상황 앞에서 별 것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니, 참 아프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각자 또는 모두의 몫일 것이다.

코로나19는 위험 앞에서 허둥대다가 쓰러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낼 것인지를 묻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반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이미 수 년 전 호되게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준비해 온 방역체계가 빛을 발했다. 선제적인 차단 정책으로 코로나19를 무력화시켰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배우고 부러워한다. 세상에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에 무려 3천 만명 가량이 참여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늘 남의 나라 뒤를 따라갈 것 같았는데, 어느덧 훌쩍 우리가 제일 앞에 서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나라가 되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어느덧 우리가 제일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긍심을 높여졌다.

한 편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을 진솔하게 되돌아 볼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번에 그동안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상황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약한 고리를 뚫고 들어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동안

무심했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단단하게 묶어 내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금 잘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 튼튼하게 고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배제나 혐오로는 바이러스를 막아 낼 수 없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고치지 않고는 누구도 안전하게 잘 살 수가 없다. 배려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식만으로 전염병 대유행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각자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 우리 사회, 우리나라,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배워야 한다. 배움을 위해서는 멈추어 서서 문제를 깊이 파고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이 뛰어난 것은 백일 동안 완전한 격리 속에서 숙과 마늘만 먹고 곰이 사람이 된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냥 웃어넘기기에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깨달음이 있다. 사람은 일상과의 단절을 통해 새롭게 성숙하는, 마치 곤충이 탈피를 하듯 그런 단절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주기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그럴 때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고 생각하고 새로움을 몸에 담아내는 과정, 즉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내가 읽어야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책이 숙이고 마늘이다. 책을 읽어

그동안
무심했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오늘의 도서관〉(공저),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공저) 등
저서 발간
서울도서관 관장 역임
이병목 참사서상 수상
(현)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





존재의 완전한 변신을 꾀해야 한다. 공부란 바로 그런 변화와 변신의 과정이다. 대학은 큰 배움의 마당이다. 큰 배움은 자신의 성취나 바람에만 매달리지 않고, 더 큰 세상,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니, 대학에서 그런 배움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당장 살아가기 어려워도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늘 예측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허둥대며 살 수밖에 없다. 위기는 내가 오라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우리가 예전 전염병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역체계를 만들어 낸 것처럼, 개인이든 사회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안전하고 살만한 미래는 오지 않는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가장 유용할 수 있다. 다시 책이고 책 읽기다. 이미 영상시대이고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나 지식들이 넘쳐나는데, 왜 고리타분하게 책인가? 책은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 나아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상상, 구체적 방안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책 읽기는 가장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가장 쉽고도 정확한 방법이다. 요즘 인터넷이나 랜선 등을 통해서 많은 정보나 자료를 접할 수 있지만, 조심할 것은 인포데믹(Infodemic)이다. 가짜뉴스나 정보가 넘쳐난다. 누구나 쉽게 정보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시대, 과연 그것이 정확하나, 사실이나, 믿음만하나 등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 피곤하다. 잘못하면 일상이나 삶을 망치기도 한다. 위험하다. 그러니 이 시대는 정확하고 사실인 정보나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앞으로는 스스로 정확하고 사실인 정보나 지식을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서둘러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다. 책 읽기를 통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공부는 책을 읽는 것이다. 밥을 먹으면 그것이 다 분해되어 몸 구성구석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해와 해석, 분해의 과정을 거쳐 저자의 지식이나 생각, 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책 뿐 아니라 모든 미디어를 잘 읽어야 한다. 어떤 미디어든 내가 주체가 되어 해석하고 분석해서 내

왜 고리타분하게 책인가?

책은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 나아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상상, 구체적 방안 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고 세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책을 읽을 때 편협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사람은 다 다르고 세상은 다양하다. 그런 다양함과 다름을 넘어 그래도 같이 살아갈 이유와 방법을 찾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고 내용이 되어야 한다. 이미 사람과 세상의 다양함이 수많은 책들에 담겨 있고, 오늘도 계속 우리 앞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 최대한 다양한 시각의 책들을 두루 읽어야 한다. 한 권의 책만을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 그런 다양함의 보고가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모여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도서관이 모든 배움의 중심, 즉 심장이라고 한다. '라떼는 말이야'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랬다. 좋은 대학교는 항상 좋은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예전에 우리가 외국 유수 대학들을 부러워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장서가 엄청 많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외국 대학으로 공부를 하러 간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도서관이 가진 장서의 많음에 더해 정확하고 신뢰 할만한 책들을 만나기 위해 도서관에 가야 한다. 책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읽기 자료가 도서관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 가진 답답함과 아픔은 바로 수많은 사람과 세상과 연결되는 길이 막혔기 때문이 아닐까? 비록 온라인으로 단편적으로 책과 자료 등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거대한 지식의 숲을 이용하지 못한 아쉬움은 컸다. 다시 도서관이 문을 열었을 때에는 암기가 아닌 읽기를 위한 책을 손에 들고 온전히 그 책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잠시 세상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돌아 다녀보길, 아예 이번 기회에 소위 벽돌책, 평소에는 감히 읽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책 읽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인생은 장편소설일진데 요즘은 장편소설이 사라졌다. 다시 장편소설 읽기도 해 보자. 긴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이 긴 호흡을 가지고 끈기있게 사는 것인데, 장편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내가 평소 잘 모르거나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찾아 읽어보길 바란다. 나의 정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는 누군가도 나에게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 내 이야기를 찾아 읽고 있는지 모른다.

코로나19 상황은 곧 끝날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는지 새로운 시간의 내용과 질을 담보할 것이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봄에 심을 씨앗을 준비하지 않는 농부는 없다. 늘 논과 밭을 갈고 살피지 않고 풍성한 먹거리를 얻을 수는 없다. 지금은 씨앗을 준비하고 논과 밭을 갈며 추위를 견디어야 한다. 언젠가 봄이 올지 모르니 오늘이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하는 날이다. 도서관 문이 열려 있을 때 책들의 숲 속에서 다양한 읽을거리들을 찾아 비축해 두어도 좋겠다. A Leader is A Reader,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 수 있다. Readers is Leaders, 혼자 읽되 다른 사람들과도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동굴에서 나올 수 있고,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다. 책 읽기로 자기를 보듬고, 읽은 책을 매개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외롭지 않고 서로에게 든든한 동지가 되어주면 좋지 않겠는가. 도서관은 개인들이 함께 자기의 외로움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화려하고 푸른 생명력의 숲이다. 그러니 도서관에 가서 칸막이 안에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슬픈 일이다. 그런 슬픔에 지지 않기를 바란다. 책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책을 읽는 나와 또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걸 꼭 잊지 않기를 바란다. 책을 읽는 사람이 자신과 이웃을 제대로 살게 한다. 코로나19 시대는 언뜻 배제와 단절, 격리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인정,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 수 밖에 없는 이웃이고 연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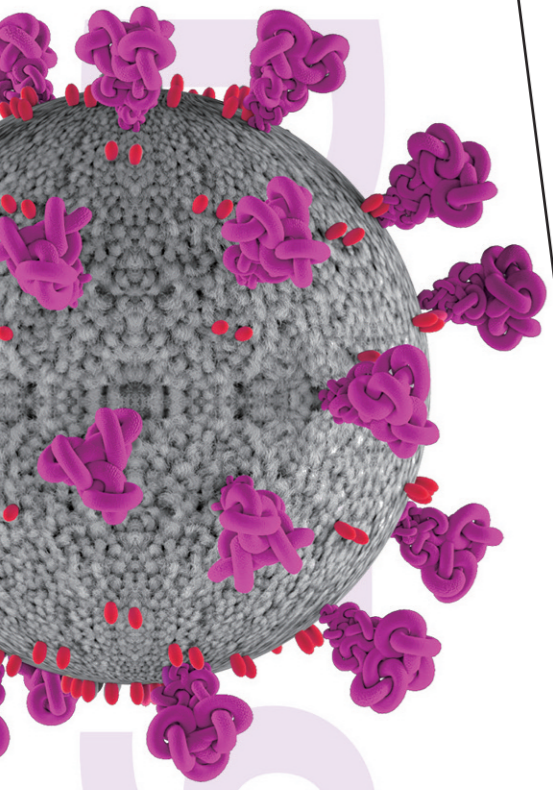
바이러스가 위대한 인류에게 묻는다. 너는, 너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 인지.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는지는 각자의 몫이지만, 그 답을 책과 도서관에서, 친구나 이웃들과 함께 찾아보길 권한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지지 않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세상,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드는 백일의 단절과 고독, 사색과 성찰, 새로운 상상과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잘 견디어 내길 바란다. 꼭 그럴 수 있으리라 믿는다.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기 위해 용기를 내서 고군분투하는 청춘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인류를 위협하는 전염병의 습격

경제발전, 의료 과학기술 발달, 위생상태 개선 등에 힘입어 전염병은 사라졌거나 관리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도 사스,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등 각종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부터 인류는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자료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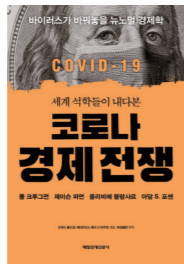
BOOK



인류는 역사상 전염병을 어떻게 극복해왔는가!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는 역사상 인류가 공포에 떨며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전염병 13가지를 해박한 역사 지식을 풀어내며 어떻게 그 전염병들을 극복해왔는지를 살펴본다. 치료법이나 전염병을 퇴치할 백신보다는, 끔찍한 전염병의 발병과 이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고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며 고귀한 성취를 이루어내어 현재의 문명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니퍼 라이트 지음, 이규원 옮김, 산처럼, 2020.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DM 614.49 W949g한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뉴노멀 경제학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역사상 처음... 모든 나라가 멈췄다!
경제적 고사 위기 속, 지금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
코로나19는 인간을 넘어 경제까지 감염시켰다. 전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있다. 주식을 시작으로 폭락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삶마저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철박함 속에 빠져가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 경제학 대가들이 모였다. 폴 크루그먼, 제이슨 포먼, 올리비에 블랑샤르, 아담 S. 포센 등 현대 경제학을 대표하는 26명의 경제학자들은 어떤 솔루션을 내놓았을까?

리처드 볼드윈, 베아트리스 베더 디마우로 엮음, 매경출판 옮김, 매일경제신문사, 2020.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330.900112 M684b한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억누를 수 없는 희망의 의지! 페스트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
'페스트'라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의연히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20세기 문학이 남긴 기념비적인 고전으로 꼽힌다. 무서운 전염병이 휩쓸 폐쇄된 도시에서 재앙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모습이 묘사된다. 인물들은 재앙에 대처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드러내 보인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절망과 맞서는 것은 결국 행복에 대한 의지이며, 잔혹한 현실과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진정한 반항임을 이야기한다.

알베르 카뮈 지음, 김화영 옮김, 민음사, 2011.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43.912 C211p한G

MEDIA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컨테이션

홍콩 출장에서 돌아온 베스가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하고 그녀의 남편이 채 원인을 알기 전에 아들마저 죽음을 맞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다. 일상생활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전염은 그 수가 한 명에서 네 명, 네 명에서 열여섯 명, 수백, 수천 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치버 박사는 경력이 뛰어난 박사를 감염 현장으로 급파하고 세계보건기구의 오란테스 박사는 최초발병 경로를 조사한다. 이 가운데 진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가 촉발한 음모론의 공포는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원인 불명의 전염만큼이나 빠르게 세계로 퍼져가는데...

마리옹 꼬띠아르, 맷 데이먼, 로렌스 피사번, 주드 로, 가네스 팰트로, 케이트 윈슬렛 주연,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워너브러더스 제작, 2012, 103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73 885



인간에게 가장 큰 위협은 바이러스다 아웃브레이크

1967년 아프리카 자이르의 모타바 계곡 용병 캠프에서 의문의 출혈열이 발생하여 군인들이 죽어가지 미군은 혈액만 채취한 뒤 용병 캠프에 폭탄을 투하해 몰살시켜 버린다.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 자이르에서 다시 출혈열이 발생한다. 닥터 샘 다니엘즈 대령이 파견되어 조사를 벌이고, 67년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모타바 바이러스가 지지되긴 했어도 미국 전역에 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 각료에게 비상조치를 취해줄 것을 경고하지만 무시당한다. 한편 실험용으로 잡혀온 감염된 원숭이를 빼돌려 판매하려던 청년과 구매하려던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변형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다. 그러자 이 바이러스의 원형인 생화학무기를 지키기 위해 군사령부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마을에 폭탄을 투하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 하는데...

더스틴 호프만, 르네 루소, 모건 프리먼 주연, 볼프강 페터젠 감독, 1995, 125분
도서관 미소장



죽음의 바이러스 감기

호흡기로 감염, 감염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의 유례 없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발병하고, 이에 정부는 전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재난사태를 발령, 급기야 도시 폐쇄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다. 피할 새도 없이 격리된 사람들은 일대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대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목숨 건 사투가 시작된다.

장혁, 수애, 박민하 주연, 김성수 감독, CJ E&M 제작, 2013, 121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51 438



치사율 100% 살인기생충 연가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염의 공포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다!
고요한 새벽녘 한강에 배와 살가죽만 남은 참혹한 물골의 시체들이 떠오른다. 이를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의 하천에서 번사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원인은 숙주인 인간의 뇌를 조종하여 물속에 뛰어들도록 유도해 익사시키는 '변종 연가시'. 짧은 잠복 기간과 치사율 100%, 4대강을 타고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연가시 재난'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킨다. 사망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자 정부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감염자 전원을 격리 수용하는 국가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하지만, 이성을 잃은 감염자들은 통제를 뚫고 물가로 뛰쳐나기려고 발악한다.

김명민, 문정희, 김동완, 이하니 주연, 박정우 감독, CJ E&M 제작, 2012, 109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51 359

부산대 앞을 지켜온 서점

부산대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서점들이 있다. 이름과 위치는 조금씩 변화하였어도 늘 부산대 앞에서 부산대 구성원들의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때로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쉼터이자 약속장소로써 오랜 시간 그 역할을 계속해오고 있다. 대형체인서점, 온라인서점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대 앞 지역서점들을 찾아가 보았다.



효원도서관

1980년대 현재의 건물 1층과 지하1층에 부광서림이란 이름으로 전 창업주가 개점한 후, 부산대학교 내 농협건물 1층으로 이전하여 1994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약 10년 동안 교내 서점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직원으로 교내서점에서 많은 일을 도맡아 하셨던 현 사장님께서 2006년 1월 20일, 정문 앞 현철의 집 건물에 효원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점하였다. 부산대 앞에서 15년 가까운 시간동안 대학 수업을 위한 교재전문 판매처로써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점 전 대형서점의 책임운영자로 오래 일해오신 사장님은 부산대 구성원들의 요청으로 원서교제도 수입하여 대학의 학습·연구를 위한 다양한 전문서적들을 제공하고 있다.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 지하1층 (TEL 051-517-6871)
운영시간 | 월~금 9:00~21:00, 토·공휴일 10:00~18:00
 (3, 9월: 월~금 8:00~23:00, 토·일·공휴일 11:00~20:00)
휴 무 일 | 일요일



부산도서

1980년대 부산도서와 학원서림 두 곳으로 운영되던 서점을 현재의 사장님께서 정문 앞 파스쿠찌 건물 1층에 1990년 '부산도서'라는 이름의 단일서점으로 개점하였다. 2016년부터는 정문 앞 현철의 집 뒷 건물로 이전하여 운영 중이다. 부산도서 또한 효원도서관과 함께 부산대 교내서점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주로 인문사회 분야 전문서적을 판매하는 교재전문 서점이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해 택배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7-1 (TEL 051-517-1011)
운영시간 | 월~금 9:00~19:00, 토·공휴일 10:00~18:00
 (3, 9월: 월~금 8:00~21:00, 토·공휴일 9:00~19:00, 일요일 13:00~19:00)
휴 무 일 | 일요일



다사랑문고

1997년 11월 21일 동래구 수안동에 새동네서점으로 설립하여 2001년 다사랑문고로 개칭하였고 2009년 3월 15일 오션프라자 지하 1층(구. 청하서림)에 현재의 부산대점을 개점하였다. 동래, 교대, 명장, 언산점까지 5개 지점이던 다사랑문고는 현재 부산대점만 운영하고 있다. 990m²의 넓은 공간에 각종 교양도서, 신간도서, 참고서, 자격증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다. 대형체인서점을 제외하고 지역서점으로는 금정구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대신 전공서적, 원서와 같은 대학교재는 판매하지 않으므로써 효원도서관, 부산도서와는 차별화를 두고 동시에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고민을 적어 서점 내 우체통에 넣으면 사연에 맞는 처방책을 추천해주는 '종이 약국'코너, 사장님의 농장에서 재배한 다육이와 다육이 관련 도서를 함께 전시해놓은 코너는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다사랑문고만의 특별한 공간이다.

위 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49, 오션프라자 지하1층 (TEL 051-514-7876)
운영시간 | 월~일 09:30 ~ 22:00



교내서점을 아십니까?

부산대 교내서점

부산대의 교내서점은 1984년 2월에 개점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교내서점은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1987년 9월 14일부터 2주간 총학생회의 주도로 학원 민주화 투쟁이 전개되자,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교내서점 대폭 확장'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서점은 당시 대학출판부에서 운영을 맡았으나, 1988년 6월 출판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내서점 운영조항이 삭제되는 등 운영주체에 있어서 난항을 겪었다. 1989년 4월 농협건물이 완공되고, 이후 1층에 새로이 교내서점을 개점하였다. 교내서점은 1994년부터 부광서림, 2005년부터 부산도서, 2007년 7월부터 부산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운영하였다. 2009년 8월부터는 교보문고와 연계하여 온라인 결제 후 출력한 도서 교환권을 교내서점에서 도서로 교환하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나 매출 저조 등의 이유로 교내서점은 2010년 5월 영업을 종료하였다.

[참고 : 부산대 70년, 공감스토리 / 부산대학교, 2016]



지난소식



중앙도서관 '소셜+Place', '바이러스' 북큐레이션 전시

부산대 도서관의 북큐레이션은 주제자료관 사서가 특정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선별하여 전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북큐레이션은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에게 책으로 말을 거는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우리 도서관은 2019년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2020년에는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에서 '소셜+Place : 소셜 속 배경이 된 곳 함께 보기'를 주제로 소설과 여행책을,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에는 '바이러스 : 우리가 몰랐던 바이러스 이야기들'을 주제로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특히, 바이러스 관련 북큐레이션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관한 선별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서관 이용교육도 온라인으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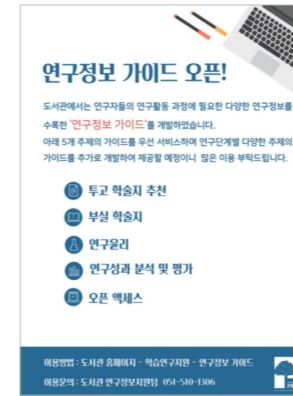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행사가 어려워지면서 학부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뿐 아니라 도서관 학술 DB 이용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진행한다. 주로 온라인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강사의 음성과 교육자료 화면을 보면서 진행되고 채팅을 통해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또한 실시간 교육 참여가 힘든 이용자를 위해 학술DB, 참고문헌관리도구(EndNote, RefWorks), 표절예방 프로그램(Turnitin), 논문작성 및 저널 투고 관련 온라인 이용교육을 모아 온라인 이용교육 가이드를 만들어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들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 소장자료 기증' 협약식

지난 5월 1일 오후 부산대 총장실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대부인 (주)한국해사기술 신동식 회장의 조선해양 관련 소장자료 기증 협약식을 개최했다. 신동식 회장은 1961년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및 대통령직속 해사행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사(海事)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 하면서 한국의 조선해양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엔 부산대 도서관에 기증하는 자료는 신동식 회장의 조선(造船) 인생 70년 동안 소장해 온 해사 관련 주요 정책 보고서, 사진 등 사료적 가치가 있는 주요 기록물 100여 점이다. 기증된 자료는 향후 디지털화 하여 한국조선산업의 태동에 대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작업을 수행해 교내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정보가이드' 오픈



도서관 연구정보지원팀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정보를 수록한 '연구정보 가이드'를 개발하였다. 현재 개발된 가이드는 총 5개로 투고 학술지 추천, 부실 학술지, 연구윤리, 연구성과 분석 및 평가, 오픈 액세스 내용을 제공한다. 이후 도서관은 학술 정보 탐색부터 논문작성, 연구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가이드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며 도서관 홈페이지-학습연구지원-연구정보가이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연구정보지원팀 051-510-1306

2020 효원인과 함께하는 원복원부산



원복원부산(One Book One Busan)은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한 교양도서 한 권을 시민의 투표로 정하여 다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책 읽는 부산, 생각하는 시민, 토론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독서생활화 운동이다. 부산대 도서관도 이와 연계하여 2020 효원인과 함께하는 원복원 부산을 마련해 책읽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올해의 선정도서(오전을 사는 이에게 오후도 미래다)와 후보도서(우리 몸이 세계라면/나무의 시간)를 무료로 배포하였다. 도서를 받은 학생은 독후감을 제출해야하며 비교과미리리지(5점)도 받게 된다. 부산대 학생들이 원복원부산운동에 동참하고, 부산 시민으로서 독서문화 콘텐츠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타기관 소장자료 대출/복사 비용 지원



부산대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해 서로 자료를 대출 또는 복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부산대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대출/복사 시에는 우편료와 복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서관에서 지원한다. 부산대 도서관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비용 지원도 함께 서비스하여 우리 대학 구성원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 부산대 교직원, 강사,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지원기간 | 2020. 3. 1. ~ 2021. 2. 28. (2020학년도 배경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이용문의 | (부산캠퍼스) 051-510-1815 (밀양캠퍼스) 055-350-5212 (양산캠퍼스) 051-510-8148 (아미캠퍼스) 051-240-7709

예정소식



중앙도서관 1층 - 효원책방 오픈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무대공간이 '효원책방-효원인들의 쉼터, 책 읽기를 통한 나만의 치유공간'으로 새 단장한다. 효원책방은 주제가 있는 도서관 상설 전시공간으로 가볍고 따뜻한 주제의 도서와 자료로 꾸며 이용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첫 만남으로 반려 동·식물을 주제로 한 '치유의 책을 만나다' 전시회를 준비한다. 이번 주제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고 도서관의 소소하지만 행복한 공간에서 책이 주는 따뜻한 위로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하였다.



기획전시회 - 도서관,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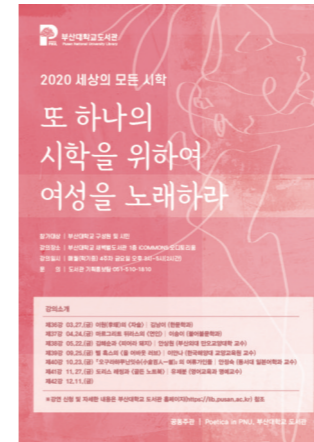
부산대 도서관은 도서관 소장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특별기획전으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지구 속 우주, 바다'를 주제로 해양과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오는 9월에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음악가 특집전을 마련한다. 특별기획전은 중앙도서관, 새벽별 도서관에서 개최 후 각 캠퍼스 분관에서도 순회 전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예술대학이나 학내 동아리 등과 연계한 협력전시도 이어질 예정이다. 도서관은 이제 캠퍼스 내의 대표적인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책 읽는 대학 -
학생, 일반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하반기에는 책 읽는 대학 사업의 여러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책 읽는 대학 사업은 REN(국립대학육성사업)의 예산지원을 받아 학내 구성원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독후감 공모전, 저자와의 만남, 북트레일러 공모전, 사람책 독서프로그램 등 참여형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학 -
또 하나의 시학을 위하여, 여성을 노래하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세상의 모든 시학 강좌의 올해 주제는 '또 하나의 시학을 위하여, 여성을 노래하다'로 정해졌다. 학기 중 매월 4주차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지난 3월에 첫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강좌는 모두 취소되었다. 하반기에는 오는 9월 25일(금)에 이안나(한국해양대 교양교육원) 교수님의 벨 훅스의 <올 어바웃 러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강좌가 준비되어 있다.



제3회 김진재SF어워드 공모전 개최

김진재SF어워드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만 27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그림, 영상 분야의 SF창작 공모전이다. 제1회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제2회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에 이어 제3회 김진재SF어워드의 주제는 '또 하나의 우주, 바다'로 정해졌다. 공모전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도서와 영상도 제시한다. 공모전 작품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옛 SF작품 속에서 그려왔던 상상 속 미래의 모습은 2020년 현재 많은 부분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김진재SF어워드 공모전에 도전해보자. 공모전 홈페이지 | <http://ssfc.pusa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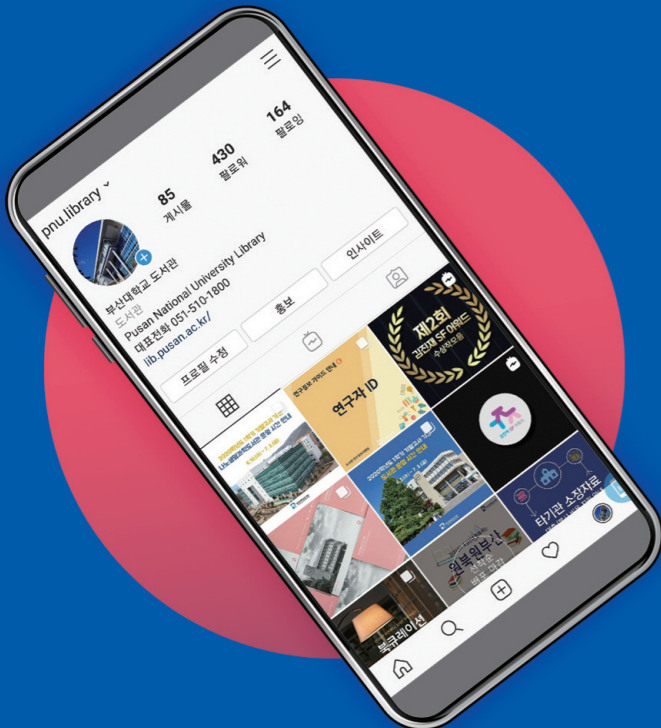
전자자료 박람회

오는 9월 새벽별도서관에서 전자자료 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는 도서관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전자자료 활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벤트로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어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1석 2조의 기회, 전자자료 박람회 잊지 말고 참여해보자.


도서관 in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글 중에서 #부산대 #새벽별도서관 #부산대도서관 등으로 태그된 부산대 도서관을 찾아보았다.



부산대 도서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 생겼습니다! 본인 SNS에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관련된 사진과 아래 해시태그를 함께 올려주세요.

 #부산대학교도서관 #부산대도서관 #새벽별도서관 #중앙도서관

도서관 in SNS에 선정된 분께는 도서관에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랜드마크, 관정관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2015년 관정관이 완공되면서 그야말로 서울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관정관은 관정 이종환 회장이 기부한 600억 원과 서울대 동문, 교직원, 학생, 외부인사 등이 참여해 마련된 약 100억원의 기금이 모여 만들어졌다.

부산대학교의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지성과 학문이 무르익어 가는 곳, 대학 대학의 상징, 바로 도서관

지적 호기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벽별의 기상이 펼쳐지는 부산대학교 랜드마크가 될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발전기금 문의 | 051-510-3820
자료기증 문의 | 051-510-7600